제14강 하이데거: 실존론적 시간성

(1교시)

1. 하이데거의 인간 해석 : 마음씀(Sorge)

후설 현상학이 남긴 중요한 공적 중의 하나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건 체험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철학적 사유의 기초로 삼았다는 데 있습니다. 현상학을 이끄는 근본 개념인 지향성은 바로 이러한 사태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데거에서 지향성은 대단히 구체적인 의미를 띠는 것으로 변환되면서 마음씀(Sorge)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미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이데거의 시간론은 바로 마음씀에 의거해 전통적인 시간론을 완전히 넘어서면서 후설의 시간론을 구체화하는 위업을 달성하게 됩니다.

하이데거가 인간을 현존재(Dasein)라고 부른 것은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현존재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 물음을 던지는 존재자(Seiendes)로 정의됩니다. 여기에서 현존재는 이미 자신의 존재에 대해 마음을 쓰는 데(sorgen)서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아예 현존재의 존재(Sein des Daseins)를 마음씀(Sorge)라고 명시합니다.(『존재와 시간』6장 제목, 41절 제목.) 하이데거의 전기 사상의 집약체라 할 수 있는 『존재와 시간』의 내용을 꿰뚫고 있는 핵심 개념이 바로 이 마음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상식적으로 말하면 인간이란 항상 뭔가 신경을 쓰면서 산다는 것이지요. 날이 많이 흐려지면 비가 올 것인가 하고 신경을 쓰고, 길을 걸으면서 혹시 엎어지지 않을까 신경을 쓰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수준의 일들 예컨대 가족이나 사회나 국가 등의 일들에 신경을 쓰면서 살지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것은 자기 자신이지요. 요즈음 건강에 관한 프로그램인 '생로병사의 비밀'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 모양인데요. 그것은 우선 자기와 주변의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이겠고, 그 바탕에서는 죽음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런 까닭에 전체적으로 보면 인간 현존재를 둘러싸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이 이렇게 신경을 쓰는 대상들이 될 수밖에 없습

www.artnstudy.com

니다.

문제는 하이데거가 이러한 마음씀을 인간 현존재의 존재로 본다는 것이 존재론적으로 어떤 새로운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겠습니다. 예컨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인간이 그것들에 신경을 쓰기 전의 상태가 있을 터이고, 그 위에 인간이 신경을 쓰기 시작하니까 비로소 인간에 의해 신경 쓰이는 상태로 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이데거는 거꾸로 입니다.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들은 인간 현존재가 그것들에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나름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하이데거는 우리 주변의 사물들에 대해 그것들은 용재성(用在性 Zuhandenheit, Zuhandensein)을 띤 용재자 즉 도구적 존재자일 수도 있고, 전재성(前在性 Vorhandenheit, Vorhandensein)을 띤 전재자 즉 도구적 성격을 벗어버린 존재자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둘 중 전자를 더 우선적인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전재자에 비해 용재자가 훨씬 더 마음씀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재성 역시 마음씀의 퇴락된(vergefallen) 양식인 이론적 인식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예컨대 세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용재자들에 신경을 쓰면서 사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아예 세계의 존재자를 넘어선 죽음에 바싹 신경을 쓰면서 사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이도저도 아니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사물을 전재자로 대하면서 사는 방식도 있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 존재자들의 존재가 달리 나타나는 것은 물론입니다. 통상적으로 '거기'를 의미하는 현존재에서 '현'에 해당하는 'da'는 그래서 존재자들의 존재가 나타나는 혹은 열리는(erschlossen, 개시성 Erschlissenheit) 통로가 되고, 하이데거는 '현-존재'(Da-sein)라 하여 '현'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강의 목적상 가장 중요한 이런 마음씀에 따라 시간(Zeit) 내지는 시간성(Zeitlichkeit) 또는 존재시간성(Temporalität)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시간성이란 근본적으로 마음씀의 의미라고 말합니다.

(2교시)

2. 마음씀의 세 범주적 구조

이렇게 중요하다보니 하이데거는 마음씀의 근본 구조를 탐색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존재가 존재를 열어내는 통로로서 상황적 심정성(Befindlichkeit), 이해(Verstehen), 퇴락(Verfallen) 세 가지를 듭니다.

상황적 심정성은 주어진 상황에서 인간이 원초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심정을 말합니다. 이는 현존재가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여기에 던져져 있다는 이른바 피투성(被投性,

www.artnstudy.com

Geworfenheit) 내지는 현사실성(現事實性, Faktizität)이라는 현존재의 성격이 성립된다고 봅니다.

이해는 무엇을 알아차린다는 의미 이전에, '어떤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현존재의 가능적인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이해로부터 기투(企投, Entwerfen)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이해는 항상 상황적 심정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투 역시 피투적 기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해가 완성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해석(Auslegen)입니다. 해석은 주로 말(Sprechen, Sprache)에 의해 나타납니다.

퇴락은 인간 삶의 이중성을 겨냥합니다. 자기 자신의 독자성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근원적으로 파고드는 삶을 살 수도(때도) 있고, 이를 벗어버린 채 다른 사람들과의 공존재(Mitsein)를 중심으로 용재자로서의 사물들에 몰입하여 세계에 의존해버리는 삶을 살 수도(때도) 있습니다. 전자의 삶의 방식을 본래적(eigentlich)이라 하고 후자의 삶을 비본래적(uneigentlich)이라 합니다. 퇴락은 본래적인 데서 비본래적인 데로 이미 내려와 있는 것을 말합니다.

"현존재의 평균적 일상성은 '세계' 곁에 그리고 남과 더불어 있으면서 [자기의] 가장 독자적인 존재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는, 퇴락하면서-개시되고, 던져진 채로-기투하는 세계-내-존재이다."(181쪽)라는 하이데거의 말은 위 마음씀의 존재로서의 현존재의 전체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존재의 전체성을 나타내는 근본 기분(Grundstimmung)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불안(Angst)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안하다는 것과 상통합니다. 불안과 마음씀은 어쩌면 동전의 양면이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세계 내부적으로 만나는 존재자) 곁에 있는 존재로서 이미 자기를 앞질러 (세계) 내에 있음"(Sich-vorweg-schon-sein-in-(der-Welt-) als Sein bei (innerweltlich begegnendem Seiendem))라는 것으로 마음씀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자기를 앞질러'(Sich-vorweg-schon)라는 표현입니다. 이를 집중적으로 몰고 나가면 본래적인 방향으로 향하게 되고, '세계 내에 있음'과 '세계에서 만나는 존재자 곁에 있음'을 중심으로 빠져 있으면 비본래적인 방향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이 두 방향에서 아예 다른 시간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3교시)

3. 일상적 시간성과 통속적 시간

1) 비본래적 시간성

www.artnstudy.com

마음씀에서 이미 자기를 앞질러 있는 쪽으로 확 나아가면 그것은 죽음에 대해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불안이란 근본적으로 죽음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현존재는 '죽음으로 나아가는(향한) 존재'(Sein zum Tode)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죽음에 대해 심각하게 혹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죽음에 특별히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이데거는 그럴 경우, 우리는 내 자신의 존재가 지닌 독자성을 향한 결의(決斷 Entschlossenheit)를 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본래적인 나의 실존성(Exitenzialität) 내지는 실존(Existenz)을 확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비본래적이라고 해서 현존재의 삶이 전혀 무의미하거나 한 것은 아니지요. 또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우리는 늘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신경을 씁니다. 그럴 때 주변의 모든 사물들은 용재자로 나타납니다. 도구적인 존재자인 용재자는 상황에 대한 적합성(適材性 Bewandtnis)과 유의의성(Bedeutsamkeit)을 가집니다. 그리고 모든 도구들은 근본적으로 '…하기 위하여'(um…zu)의 도식 속에서 결국에는 인간 현존재를 향해 계열화됩니다. 망치는 못을 박기 위한 것이고, 못은 판자를 잇기 위한 것이고, 판자는 상자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상자는 물건을 담아두기 위한 것이고, 결국에는 이 모든 도구의 계열들은 인간을 향해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시간적인 배열, 특히 장래(Zukunft)가 들어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이를 비본래적 장래라고 하는데요. 현존재는 자기가 신경 쓰고 있는 도구적인 계열들을 미리 자기에게 앞당겨 도래케(zukommen)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하이데거는 예기(豫期, Gewärtigen)라 하고 기대는 바로 이러한 예기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기와 기대를 통해 예기되고 기대되는 것이 지금 나타나는 셈인데요. 이를 하이데거는 현전화(現前化 Gegenwärtigen)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스스로의 독자적 존재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예기를 통해 현전화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기존(Gewesen)을 망각된 상태로 보유한다고 하이데거는 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비본래적인 일상적 이해 속의 시간성을 '망각하면서 현전화하는 예기'(das vergessend(oder behanltende)-gegenwärtigende Gewärtigen)라 말합니다. 이렇게 시간성이란 기본적으로 끌어모이면서도 지평적으로 스스로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를 탈자적 시간성(ekstatische Zeitlichkeit)라 합니다.

2) 세계 시간을 통한 시간의 공공화

세계는 현존재가 세계-내-존재로서 일상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지평입니다. 하이데거는 세계 역시 시간성을 띠는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성을 일부 가능성(日付可能性, Datierbarkeit)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일부 가능성이란 어느 때 언제 하고서 일자나 요일 혹은 지난해, 올해 등 하면서 시간에 일종의 번지수를 매길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중심은 현전화입니다.
현전화란 '그때가 되면'이라든가 '저때에 그랬었지' 할 때 그때(dann)와 저때(damals)가 '지금'에 근거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후설의 살아있는 현재처럼 항상 두툼한 폭(Spannweite)을 지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의 폭을 결정하는 것은 현존재의 마음씀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금은 외출 중', '지금은 회의 중', '지금은 해외에 가 있음' 등에서 도대체 물리적으로 보아 그 길이가 어느 정

www.artnstudy.com

도인지 알 수는 없지만 나름의 폭을 지니고 있는 것이지요. 폭을 지닌 시간성은 물리적으로 말하는 시간과는 전혀 질이 다르지요. 하이데거는 이를 배려적 시간(besorgte Zeit)이라 합니다.
그런데 하이데거는 이렇게 폭을 지니고서 일부화되는 배려적 시간 역시 일출과 일몰 등의 자연의 시간에 의거해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근원적으로 자연의 시간에 의거해서 일부화되는 시간을 공공적 시간(öffentliche Zeit)라 합니다. 우리는 공공적 시간 속에서 세계 내부적인 용재자와 전재자를 만나는 셈인데, 하이데거는 이러한 시간을 세계 시간(Weltzeit)라 합니다. 이 세계 시간은 비본래적 시간이긴 하지만 현존재의 비본래적 시간과 마찬가지로 거기에는 탈자적-지평적 구조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3) 통속적 시간
통속적 시간(vulgäre Zeit)은 이러한 탈자적-지평적 구조가 없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적합성이나 유의성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완전히 양적인 시간입니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통속적 시간을 '지금-시간'(Jetzt-Zeit)이라 달리 부르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과거는 이미 지금이 아니고, 미래는 아직 지금이 아니라는 식으로 완전히 추상화된 시간이고 그저 흘러갈 뿐이라고 여겨지는 수평적인 시간입니다.
시간을 통속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지금이 지니고 있는 탈자적이고 지평적인 구조와 그에 따라 시숙(時熟 zeitigen)하는 존재자들의 적합성과 유의의성이 탈각되면서 은폐되고 맙니다. 그런 은폐를 통해 시숙의 지평적 틀이 완전히 수평화되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이 통속적 시간은 현존재가 더욱 더 퇴락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4교시)

4. 본래적 시간성

마음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쓰는가에 따라 본래적인 방향과 비본래적인 방향이 나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씀은 자기를 앞질러 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멀리 앞질러 가면 죽음이 등장할 것이고 따라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혹은 죽음을 향하면서 죽음을 여기로 최대한 끌어들일 때 마음씀의 앞지름은 최대한으로 확보될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씀이 자기를 앞질러 멀리 나아가 그곳에 있는 것을 끌어당기려 하는 것을 하이데거는 선구(先驅 Vorlaufen)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의 선구가 마음씀의 전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확한 길이라 보는 것입니다.
죽음은 타인들을 포함한 일체의 존재자들과의 연관을 여지없이 단절시켜버립니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죽음의 현상에서 오히려 거꾸로 현존재가 자기만의 독자적인 존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하이데거가 끌어들이는 중요한 개념이 양심(Gewissen), 또는 양심의 부름(Ruf des Gewissens)입니다.

www.artnstudy.com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이 인생인가?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이렇게 살다 가면 되지 뭘 그렇게 아등바등될 일인가? 하게 되면 하이데거에 따르면 퇴락에 빠져들어 비본래적인 상태로 그냥 인간에 불과한 세인(das Man)이 됩니다. 불안은 근원적으로 무의미를 살포하는 죽음의 전포괄적인 그림자와 같습니다. 이렇게 살다 갈 것인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한편으로 우리의 존재가 세계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투되어 있다는 것과 직결됩니다. 이 지경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은 '아님'(Nicht) 내지는 무(Nichts)입니다. 이것에 의해 나의 존재마저도 부정성의 권역 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인간 현존재의 일종의 운명을 '책(責)을 지고 있음'(Schuldigsein)이라 말합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빚을 지고 있음'이 되겠습니다. 굳이 말하면 인간은 존재에의 빚을 지고 있는 존재자라는 것이겠지요. 빚을 진 자가 빚지고 있음을 망각해버리면 그것은 양심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양심은 현존재가 자기 존재에 대해 확실하게 빚을 지고 있음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소리는 바로 자기 존재가 스스로에게 울부짖는 소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기 존재에 대한 빚의 원천은 죽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빚쟁이'인 죽음과 맞닥뜨려 결판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에로의 선구입니다. 양심을 통해 자기 존재가 드러나는 것을 눈치 채고서 확실하게 '양심을 가지려고 하는'(Gewissen-haben-wollen) 현존재의 상태를 '결의성'(決意性, Entschlossenheit)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구와 결의성은 하나가 되고, '선구적 결의성'(vorlaufende Entschlossenheit)은 현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존재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아울러 현존재의 전체성과 본래성은 이 선구적 결의성에 의해 확보된다고 말하게 됩니다.
문제는 시간성입니다. 하이데거는 바로 이 선구적 결의성에서 본래적인 시간성이 열린다고 봅니다. 이에 관한 핵심 대목을 보기로 합니다.

"선구적 결의성이란 자기의 가장 독자적이고 두드러진 존재 가능을 향한 존재이다.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은 일반적으로 현존재가 자기의 가장 독자적 가능성[죽음]에 있어서 자기에게로 도래(zukommen)할 수 있고, 이렇게 '자기를 자기에게 도래케 함'에 있어, 가능성을 가능성으로 감내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실존하기 때문이다. 이 두드러진 가능성을 감내하면서, 그 가능성 속에서 자기를 자기에게 도래케 하는 것이 장래(將來, Zukunft)의 근원적 현상이다. 현존재의 존재에 본래적 또는 비본래적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속한다면, 이 존재는 지금 시사되었으나 좀더 자세히 규정되어야 할 의미에서 장래적 존재로서만 가능하다. 여기에서 '장래'란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곧 있게 될 지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현존재가 그의 가장 독자적 존재 가능에 있어서 자기에게 도래할 그 옴(來)을 가리킨다. 선구는 현존재로 하여금 본래적으로 장래적이게끔 하지만, 선구 자체가 가능한 것은 오직 현존재가 존재하는 자로서 일반적으로 이미 언제나 자기에게 도래하는 한에서만, 즉 현존재가 그 존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장래적인 한에서 만이다."(325쪽, 583-4쪽)

하이데거는 여기에서 시간성을 근원적으로 '장래'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의 죽음을 나에게 두드러진 가능성이라 하면서 이 가능성을 결단코 인수해서 감내하는 데서 나의 존재가 나에게 도래하게 된다고 말하고, 그러한 도래에서 바로 근원적인 시간성이 장래가 성립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피적인 시간성이 아니라 내가 나의 존재를 근원에서부터 전체적으로 확보하고자 할 때 성립하는 시간성을 노리면서, 그 본래적

www.artnstudy.com

인 시간성은 내가 나를 되찾을 때 그 되찾는 내가 나에게 도래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이야깁니다.

내가 굳이 찾아야 할 내가 있기나 한가? 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시간성입니다. 하이데거 공부를 하면서 정말 의혹이 가는 것은 하이데거의 실존론적인 존재론 내지는 인간학이 대단히 기독교적인 냄새를 풍긴다는 점입니다. 내가 되찾아야 할 나란 도대체 무엇인가요? 기독교에서는 신의 형상이라 하지요. 이 신의 형상을 상실한 것이 바로 원죄 상태이고요. 이 원죄 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구원은 곧 자기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고요. 하이데거에서 빚을 지고 있음은 원죄와 비슷하고, 양심의 부름은 자기가 죄인임을 확실히 깨닫는 것과 비슷하고, 선구적인 결의를 해서 죽음과 맞닥뜨리는 것은 회개와 비슷하고, 자기 자신을 도래케 하면서 성립되는 실존은 구원받은 자와 비슷합니다. 물론 하이데거를 이렇게 기독교적으로 독해하는 것은 정말 문제입니다만, 그 구조가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래서 하이데거는 기독교적인 신학을 인간 내재적인 철학으로 끌어내렸다 할 수 있습니다. 하이데거의 철학이 신학에 많이 원용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하이데거는 마음씀이라고 하는 현존재의 근본 존재에서부터 시간성을 찾아내어 그것이 마음씀의 의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시간성이란 인간 현존재의 의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이데거는 이 장래를 바탕으로 본래적 시간성이 통일되는 현상을 지적합니다.

“선구적 결의성은 현존재를 본질적으로 책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한다. 이 이해는 책을 지고 있음을 실존하면서 인수하는 것, 즉 비성(非性, Nichtigkeit)의 피투적 근거로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피투성의 인수란, 현존재가 그때마다 이미 있었던 대로 본래적으로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피투성의 인수는, 장래적 현존재가 가장 독자적으로 ‘그때마다 이미 있었던 대로’, 다시 말하면 자기의 ‘기존’(Gewesen)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만 가능하다. 현존재가 일반적으로 나는 기존으로 있다로 존재하는 한에서만, 현존재는 [기존적 자기로] 돌아오는 만큼, 그렇게 장래적으로 자기 자신으로 도래할 수 있다. 가장 극단적이고 가장 독자적인 가능성[죽음] 속으로 선구하는 것은 가장 독자적인 기존으로 이해하면서 돌아오는 것이다. 현존재는 장래적인 한에서만 본래적으로 기존으로 있을 수 있다. 기존성은 어떤 방식으로든 장래에서 발생한다.”(325-6쪽, 585쪽)

뭔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양심에 의한 선구적인 결의성은 그저 현존재가 자신의 도래를 맞이하는 장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존재가 피투된 존재로서의 스스로의 처지를 그대로 인정하는 한에서만 장래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이데거는 ‘피투된 존재로서의 스스로의 처지’를 ‘기존’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지, 선구적 결의성을 통해 비로소 처음으로 열리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선구적 결의성이 없이는 자신의 죽음을 정확하게 자신의 존재의 가능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자신에게 도래케 하는 장래에는 자신의 기존이 아울러 묻어들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이데거는 “ ‘현전화한다’는 의미에서의 현전(Gegenwart)으로서만 결의성은 본디의 결의성일 수 있다.”(326쪽, 586쪽)라 말합니다. 사실 그러하지요. 장래든 기존이든 그것

www.artnstudy.com

들이 도대체 현전화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성립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이데거는 결국 장래와 기존 및 현전을 현존재 자신의 실존이 성립하는 근본 구조로 보면서, 이 셋은 그렇게 분절해서 서술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분절된 것은 아니고 본디부터 통일적인 현상이라 여깁니다. 그리고 이 통일적 현상을 '기존하면서-현전화하는-장래'(gewesend-gegenwärtigende-Zukunft)라고 묶어서 표현하고 이를 시간성(Zeitlichkeit)라 합니다.

5. 정리

하이데거는 후기에 이르러 '시간과 존재'라는 주제 하에 현존재의 연관을 벗어난 시간문제를 '현전'(Anwesen), '부재'(Abwesen), '이음새'(Fuge) 등을 통해 논구합니다만, 그것에 관해서는 다음 기회로 미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이데거의 시간론은 후설의 '살아있는 현재'로서의 시간성을 실존론적으로 구체화하여 해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송곳처럼 깊숙이 찌르고 들어와 나의 존재 전체를 휘감으면서 제 스스로 성숙함으로써 스스로를 개시하는 시간성, 따라서 도대체 인간 현존재의 근본적인 활동인 마음씀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시간성.

www.artnstudy.com